



홈페이지 외주 계약 전 확인할 15가지

견적 금액만 비교하기 전에 범위, 일정, 소유권과 운영 인계를 한 번에 점검하세요.

이 체크리스트가 필요한 경우

- 업체마다 견적 금액과 설명이 달라 비교가 어렵다
- 기획서가 없어서 무엇부터 물어봐야 할지 막막하다
- 오픈 뒤 직접 수정하거나 업체를 바꿀 수 있을지 걱정된다

01. 무엇을 만들고,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낮은 견적보다 위험한 것은 빠진 범위입니다. 아래 항목이 견적서와 계약서에서 같은 뜻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 ⁰¹ 홈페이지의 목적과 핵심 고객이 한 문장으로 정리돼 있다.

예: 부산 제조기업의 구매 담당자가 제품 규격을 확인하고 견적을 요청하는 홈페이지

☐ ⁰² 페이지 수가 아니라 실제 화면과 기능 목록이 적혀 있다.

메인, 회사소개, 서비스, 사례, 문의처럼 화면 단위로 확인합니다.

☐ ⁰³ 모바일 대응, 자료 입력과 문구 작성 범위가 포함돼 있다.

‘반응형 포함’뿐 아니라 누가 사진과 원고를 준비하고 입력하는지까지 봅니다.

☐ ⁰⁴ 수정 횟수와 수정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명확하다.

문구 교체, 레이아웃 변경, 신규 기능 추가를 같은 수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 ⁰⁵ 검색 등록, 분석 도구와 문의 측정 범위가 적혀 있다.

네이버·구글 등록, GA4, 광고 전환 측정과 계정 인계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 질문

“이 금액으로 최종 공개까지 포함되는 결과물을 화면별로 보여주세요.”

02. 오픈 뒤에도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나요?

홈페이지가 완성돼도 계정과 자료가 업체에만 남으면 수정·이전·유지보수 선택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⁰⁶ 도메인과 호스팅·클라우드 계정의 명의를 발주사다.

업체 계정에 묶여 있다면 계약 종료 시 이전 절차와 비용을 확인합니다.

☐ ⁰⁷ 관리자 계정과 권한을 오픈 전에 전달받는다.

문구·이미지·게시물 등 직접 바꿀 수 있는 범위를 실제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 ⁰⁸ 소스코드와 디자인 원본의 전달 범위가 적혀 있다.

저장소, 디자인 파일, 사용 폰트·이미지 라이선스까지 포함 여부를 봅니다.

☐ ⁰⁹ 외부 서비스 계정과 연동 목록을 문서로 받는다.

메일, 지도, 상담, 결제, 분석, 광고 계정과 담당자를 함께 기록합니다.

☐ ¹⁰ 운영 매뉴얼과 백업·장애 대응 기준이 있다.

누가 백업하고 장애 발생 시 어디로 연락하며 비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남길 문장

“도메인·서버·관리자·분석 계정과 합의된 원본 자료를 발주사 명의로 인계한다.”

03. 일정과 완료 기준이 보이나요?

☐ ¹¹ 최종 완료일뿐 아니라 중간 결과물과 확인 날짜가 있다.
기획, 첫 화면, 전체 화면, 개발본, 오픈 점검의 날짜를 구분합니다.

☐ ¹² 지연될 때 새 일정과 책임을 정하는 방식이 있다.
'협의한다'보다 지연 통보 시점, 변경 일정과 비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¹³ 완료·검수·하자의 뜻이 기능별로 정의돼 있다.
화면이 보이는 것과 문이 전달되고 모바일에서 정상 동작하는 것은 다릅니다.

☐ ¹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조건과 단가가 적혀 있다.
신규 페이지, 기능 변경, 자료 지연, 외부 솔루션 비용을 구분합니다.

☐ ¹⁵ 유지보수 기간·응답 시간·종료 후 선택지가 있다.
무상 보증과 운영 관리의 차이, 타 업체 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점검 결과

0~3개 미확인 계약 전에 빠진 항목만 보완하면 됩니다.

4~7개 미확인 견적 비교보다 범위·소유권을 다시 확인하세요.

8개 이상 미확인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결과물 기준부터 재정리하세요.

기획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현재 불편한 점과 바꾸고 싶은 모습을 남기면 RIS 시니어 팀이 범위부터 함께 확인합니다.